

익산 국립식품박물관 청사진 그린다

시, 기본구상 용역 중간 보고회… 우리나라 식품 문화·산업 역사 체험·학습 공간 조성

익산시가 국가 식품산업의 역사와 미래를 아우를 국립식품박물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시는 9일 익산시청에서 '국립식품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관계자들과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는 국립식품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의 중간 성과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 방향과 단계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익산시·익산시의회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해 머리를 맞췄다.

국립박물관이라는 특성상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협력이 필수인 만큼 계획안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조율해 현실적인 실행 전략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보고회에서는 △식품박물관의 기본 방향 △전시, 체험, 교육 등 공간 구성 △운영 방식과 단계별 추진 전략 등 안건이 폭넓게 논의됐다.

국립식품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



을 넘어, 우리나라의 식품 문화와 산업 역사를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참여형 박물관'으로 조성된다.

이는 식품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물론, 미래 식품산업의 비전 제시와 산업 홍보 거점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국내 유일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품은 익산은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를 잡은 만큼 국립식품박물관의 최적지로 손꼽힌다.

시는 박물관 건립이 식품 문화의 대중화와 관광 자원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국립식품박물관은 익산의 식품 정체성을 기반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식품 문화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거점이 될 것"이라며 "중간 보고회를 통해 수립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식품문화 공간을 실현해 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착수한 국립식품박물관 기본구상 용역은 오는 7월 완료 예정이며 이후 관련 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인 건립에 돌입하게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배달의명수' 사업 활성화 시동

가맹점 집중 유치·농림축산식품부 연계 추가 할인쿠폰 제공 등

군산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 부담 경감과 지역 경제 부흥을 위해 '배달의명수' 사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배달의명수'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 배달 플랫폼으로, 중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지역화폐 연계 소비 촉진 등을 위한 집중 유치 기간으로 설정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문모세)와 공무원,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사가 협력하여 시내 각 상점을 방문하며 가입 안내를 하는 한편, 신규 가맹점 확대를 통한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10일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2만원 이상 결제 3회 시 1만 원 쿠폰 제공 프로모션이 시행된다. 가맹점 신청은 배달의명수 고객센터(☎1899-8103)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063-454-2682)로 문의하면 된다.

고객을 위한 쿠폰 이벤트로 소비자들의 이용 확대에도 주력했다. 시는

주문 시 3,000원~1만원까지 다양한 할인쿠폰을 제공, 많은 소비자가 '배달의명수'를 경험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군산대 축제, 새만금마라톤 행사 등 현장 홍보부스 운영으로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는 6월을 '배달의명수' 가맹점 확보를 위한 집중 유치 기간으로 설정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문모세)와 공무원,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사가 협력하여 시내 각 상점을 방문하며 가입 안내를 하는 한편, 신규 가맹점 확대를 통한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 백토로 일대 '사계절 가로정원' 조성

한국전력공사와 저수고 수종 갱신 지원 협약 맺어

군산시는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백토로(백토고개사거리~백토사거리, 연장0.4km)구간 상가 방면에 '사계절 가로정원'을 조성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 백토로의 가로수였던 버즘나무는 성장 속도가 빨라 배전선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가지치기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예산의 반복 투입 및 수형 불량으로 경관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가로수 내부에 공동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인해 수목이 쓰러질 우려가 있었고, 봄철에는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 유발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런 의견을 반영한 시는 먼저 상가 방면의 기존 우량 가로수를 이식하고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유지해 가로

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상록활엽수종으로 수종을 갱신하였다.

아울러 화단에는 포인트 수종과 다양한 초화류를 함께 심어 단순한 보행공간을 넘어 변화와 다채로움이 가득 찬 녹색정원으로 조성하였다.

특히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는 가로수와 배전선로 접촉에 의한 고장 예방 및 전선 안전성을 고려해 저수고 수목 구입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등 군산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탰다.

군산시는 이번 백토로 가로정원 조성을 시작으로 앞으로 한국전력공사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도심 내 녹색공간을 확대하고, 전선 안전과 경관 개선을 동시에 고려한 친환경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대규모 국제 스포츠대회 연달아 유치

장애인 펜싱·배드민턴·펜싱 종목 국제대회 연속 개최

탄탄한 기반·유치 전략으로 스포츠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익산시가 대규모 국제대회를 연달아 유치하며 스포츠 중심도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한다.

익산시는 올해 하반기에 △익산 WA 장애인펜싱 세계선수권대회(9월) △코리아마스터즈 배드민턴선수권대회(11월) △20세 이하 코리안인터내셔널 펜싱 선수권대회(12월)가 열린다고 9일 밝혔다.

'익산 WA 장애인펜싱 세계선수권대회'는 오는 9월 2일부터 7일까지 개최

된다. 이번 대회는 세계 장애인 펜싱계에서 패럴림픽 다음으로 높은 랭킹 포인트가 부여되는 권위 있는 대회다.

특히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패러게임' 출전권 획득과 관련된 핵심 대회로,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4일부터 9일까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금 24만 달러가 걸린 월드컵부터 대회 '코리아마스터즈 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익산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현장 관람뿐만 아니라 방송 중계를 통해 세계적인 선수들이 펼치는 수준급 경기를 만나볼 수 있다.

12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20세 이하 코리안인터내셔널 펜싱 선수권대회'가 열린다. 유망한 신인 선수들에게 국제무대 경험을 제공하고, 익산시가 아시아 펜싱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익산시는 탄탄한 체육 기반과 쾌적한 훈련 환경, 그리고 안정적인 대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 대회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내의 선수들이 찾는 최적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2025년은 익산시가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주목받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회 유치와 마케팅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스포츠 도시 익산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국립군산대, 파기부

기초연구사업 선정

국립군산대학교가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1차 신규과제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에서 글로벌 기초연구실 개척형 분야에 선정된 과제는 국립군산대 박대욱 연구팀의 '포트홀 발생 위험 지점 사전 예측을 위한 멀티모달 센싱 기반 자율탐사 로봇 시스템 개발'로 2028년까지 약 1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연구는 국립군산대 박대욱 교수를 중심으로 김인호·장세준 교수, 가천대 송호민 교수가 참여한다. 연구팀은 국내 도로 노후화와 기후 변화 영향 등으로 포트홀로 인한 사망사고와 작업자 안전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무인로봇 플랫폼을 활용한 도로의 자율탐사 등 포트홀 사전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도로포장 결함부 정밀 탐지, 멀티모달 센싱과 AI 기반 데이터 처리 기술이 탑재된 자율주행 로봇 시스템 개발 등 혁신 기술을 연구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미래 원천 기술 확보와 도로 유지관리의 선제적 관리 등 공공 안전 강화 및 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시민 제안 공모

1차 우수 제안 선정

군산시는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와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실시했던 '민관협업 정책디자인' 우리들의 군산 2025년 군산시 시민 제안 공모전 1차 우수 제안을 9일 발표했다.

시는 접수된 71건의 제안 중 실무부서 사전검토와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선정된 시민 우수 제안은 총 7건으로 △'군산 시간여행 열차' 도입을 통한 체류형 관광도시 군산 조성 △군산 시간지축은행 △1. 꽃이 있어 즐거운 도시 군산 2.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놀 수 있는 군산 △도심 근린공원 정밀화 및 인공폭포 설치 △동네소품집구(동네육아카페) △성장캠프: 9시까지 놀자! △안전한 우리 동네공원 이름표 달아주기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당을 계속 이어 지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